

‘무인텔’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광주·전남 50여 곳 성업...신분 확인 어려워 탈선장소 악용

‘관리감독 강화’ 범·제도 정비 시급

투숙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등장한 ‘무인(無人) 모텔’(이하 무인텔)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등 범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숙박업소를 규제하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무인텔에 대한 시설 규정이나 개념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일선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텔을 포함한 숙박업소는 모두 2천420곳에 이른다. 이 중 ‘무인텔’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무인텔’도 업종 자체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숙박업소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화순도곡면천지구·광주 첨단지구 등에 50여 곳의 ‘무인텔’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텔’의 경우 입실에서 퇴실과 정까지 종업원은 물론 다른 투숙객과 마주칠 일이 없다. 1층 현관에 마련된 객실 형태와 가격 등이 적힌 안내화면을 보고 투숙객이 객실을 고른 뒤, 자동판매기와 비슷한 무인 계산대를

통해 계산하고 입실하면 된다.

하지만 출입구와 무인계산대 등 한정된 곳에 설치된 CCTV로만 출입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신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거나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 광주지역 모텔에서 미성년자 혼숙·도박·윤락행위 알선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30곳이지만 무인텔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무인텔이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크지만 관리감독은 뒷전이다. 경찰은 청소년 보호법·풍속영업의규정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라 미성년자

혼숙 등을 단속할 수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지자체는 숙박업의 경우 관할 구청 권한이지만, 단속은 경찰의 업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광주 M모텔 업주는 “일반 모텔도 미성년자 확인 절차 없이 받는 경우도 많은데, 무인텔의 경우 오죽하겠느냐”며 “경쟁 업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텔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무서운 여중생들

“채팅 중 욕한다” 무인텔로 불러내 눈썹 면도질·폭력 휘두른 3명 검거

인터넷 채팅 중 욕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무인모텔로 불러내 폭력을 휘두른 남·여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29일 인터넷 채팅 중 욕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조모(15·광주 D여중 2년 중퇴)양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양의 친구 임모(15·광주 J중 2년)양과 박모(14·광주 S중 2년)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양 등은 지난 17일 오후 6시에 광주시 북부 중흥동 Y 무인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알게 된 이모

(15·곡성 모 중학교 2년 중퇴)양의 얼굴을 때리고 면도날로 눈썹을 깎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양 등은 이양이 채팅 중 욕설을 하고 가출한 일행 중 박군과 사귀면서 최근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조양 등은 수개월 전 가출한 뒤 Y 무인모텔 등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경찰은 무인모텔 업주를 불러 조양 등 미성년자들이 장기투숙 해온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 국제실버박람회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07 광주 국제실버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지압마사지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있다. 내달 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영국·미국·일본 등 국내외 90여 개 업체에서 참가하며 노후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품을 전시한다.

/위리장 기자 jrwi@kwangju.co.kr

음주운전 차 인도 돌진 양동시장 앞 70대 숨져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했다.

29일 새벽 2시35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앞에서 상인 김모(여·70)씨가 인도로 돌진한 19호50XX호(운전

자 조모씨·27) SM5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운전자 조씨는 이날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돌고개에서 유동방향으로 차를 돌린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18호53XX호(운전자 최모·24)의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조씨를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현주 기자 ahj@kwangju.co.kr

골프가 뭐길래...

40대 주부, 골프강사와 바람 가정 파탄

광주시 광산구 모골프연습장의 강사인 이모(37)씨는 지난 9월19일 새벽 2시30분께 광산구 D아파트 후문에 차를 세웠다. 자신에게 골프를 배우는 초보 골퍼 C(여·40)씨를 집에 내려주기 위해서였다.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던 C씨의 남편 김모(36)씨가 차에 탄 두 사람을 목격했다. 화가 난 김씨가 차문을 열려고 하자 이씨는 김씨를 차로 밀고 C씨를 태운 채 도주했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남편은 이씨를 폭력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경찰의 잇단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잠적했다가, 지난 19일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의 원형에서는 C씨와 함께 살림을 차린 흔적이 발견됐다.

이 사건 이후 C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데다 심한 의처증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며 수억원의 위자료료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김씨도 아내와 이씨를 간통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조폭 동원 동업자 협박 건물 빼앗은 40대 검거

조폭 2명도 영장

광주 북부경찰은 29일 동업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해 건물 소유권을 가로챈 D건설 사장 김모(43·광주시 서구 월산동)씨와 광주 수기동과 두목 유모(48·북구 문흥동)·같은 조직 행동대원 최모(42·서구 금호동)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초부터 광산구 신창동 8건물에 있는 임모(42)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컴퓨터와 책상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르며 협박, 15억원 상당의 5층 건물 내 점포 54개 중 20개를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또 임씨에게 “점포를 이전

해 주지 않으면 부인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납치해 생매장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와 임씨는 D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지(2천380㎡)는 임씨가 제공하고, 김씨는 시공(연면적 8천925㎡)을 맡는 등 동업계약을 했다.

계약 과정에서 김씨는 점포 54개 중 38개 이상 분양(70%)될 경우 수익금 30%를 받기로 했으나 분양률이 20.7%(15개 분양)에 그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조폭들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다 우울증까지 앓게 돼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견디다 못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가짜 비아그라 판매 전남경찰, 30대 영장

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와 여성흥분제 등 불법의약품 대량으로 판매해 온 박모(38)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상표권 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10일 중국 대련시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구매자들에게 가짜 비아그라·여성흥분제 등 불법의약품을 1정당 1만6천원~2만원에 주문·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중국 현지에서 ▲대표통장 구입 ▲물품 주문 ▲전화상담 ▲물품 발송 등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 관리하는 등 점조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371) 김중두

기약하던 정은 이명박만 걸었다

이정인! 무라카미! 이만!

더 이상! 알맹이! 인! 인!

김중두가 자다라!

김중두가 자다라!

다들 권력·선정재 KCC

DS건설(주) KCC·철도, 건설, 도매, 대외

KCC·철도, 건설, 도매, 대외

▶ 02-2629-1111 ▶ 02-2629-1111

(주)본드나리 KCC·철도, 건설, 도매, 대외

실리콘·방수제·건축재·타이브

▶ 02-2629-1111 ▶ 02-2629-1111

‘성추행’ 前 농구감독 손해배상 피소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전 감독 박명수(45)씨에 대해 피해 선수와 그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리은행 농구단 선수 A씨는 “박씨의 성폭력으로 인해 선수 생활 중단을 고민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

○A씨 측은 “박씨의 성폭력으로 인해 장애유망한 선수가 불만·공포·수치심으로 방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해외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2004년 4월 호텔방으로 A씨를 불러 옷을 강제 벗기는 등 성추행을 했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상태.

/연합뉴스

가자! 제주로 - 한파상에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대한민국 최초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겨울 한라산 탐방 사은행사 】

UNESC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공사